

선진경제실 / 미주팀

## (중남미) 코로나19 관련 동향

2020.4.23

### 1. 확산 동향

-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의무 착용, 통행금지 등을 비롯한 각종 격리 조치 강화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말을 계기로 확진자는 다시 증가세 기록
  - 중남미지역 팬데믹 중심국인 브라질의 경우 4.17~22일 6일간 평균 약 2,550여명 증가하고, 페루에서도 일일 1,000명의 확진자 발생 보고
  - 멕시코에서는 다소 느슨한 방역대책으로 인해 주말을 계기로 일일 확진자 수와 의료진의 감염 사례가 급증
    - 특히 팬데믹 3단계 선언 다음날인 4월 22일 처음으로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돌파
  - 에콰도르, 희생자 수 급증 전망<sup>1)</sup>
    - 팬데믹 중심지역인 Guayas州의 3.1~4.20일 간 사망자 수가 10,939명을 기록
      - 일반적인 사망률의 4배 가까운 수치인바, 내무부 장관(María Paula Romo)은 20일 실질 희생자 수가 공식집계를 상회할 가능성 언급
  - 4월 23일 현재 확진자 수는 지난주보다 52.5% 증가한 12만 1,531명, 사망자 수는 66.4% 증가한 6,073명 기록

표 1. 중남미 국별 코로나19 확진자 현황(2020.4.23., pm 01:43)

| 국가 <sup>1)</sup> | 확진자(명) <sup>2)</sup> | 특징                                                                       |
|------------------|----------------------|--------------------------------------------------------------------------|
| 브라질              | 46,182(2,924)        | 최초 확진자 보고(2.25), <a href="#">최초 사망자 보고</a> (3.17)                        |
| 멕시코              | 10,544(970)          | 최초 확진자 보고(2.28), <a href="#">최초 사망자 보고</a> (3.18), WHO의 2단계 팬데믹 선언(3.23) |
| 에콰도르             | 10,850(537)          | 최초 확진자 보고(2.29), <a href="#">최초 사망자 보고</a> (3.13)                        |
| 도미니카공화국          | 5,300(260)           | 카리브 지역 최초 확진자 보고(3.1), <a href="#">최초 사망자 보고</a> (3.16)                  |
| 아르헨티나            | 3,288(159)           | 최초 확진자 보고(3.3), <a href="#">최초 사망자 보고</a> (3.7, 중남미 최초 사망자, 사후 확진)       |
| 칠레               | 11,296(160)          | 최초 확진자 보고(3.3), WHO 기준 팬데믹 4단계 개시, <a href="#">최초 사망자 보고</a> (3.21)      |
| 코스타리카            | 681(6)               | 중미지역 최초 확진자 보고(3.6), <a href="#">최초 사망자 보고</a> (3.18)                    |

1) The Inter-American Dialogue's Latin America Advisor(2020.4.20.), "New Figures Show Soaring Deaths in Ecuadorean Province," p. 2.

|         |                |                                                   |
|---------|----------------|---------------------------------------------------|
| 콜롬비아    | 4,356(206)     | 최초 확진자 보고(3.6), <a href="#">최초 사망자 보고</a> (3.21)  |
| 페루      | 19,250(530)    | 최초 확진자 보고(3.6), <a href="#">최초 사망자 보고</a> (3.19)  |
| 파라과이    | 213(9)         | 최초 확진자 보고(3.7), <a href="#">최초 사망자 보고</a> (3.20)  |
| 파나마     | 4,992(144)     | 최초 확진자 보고(3.9), <a href="#">최초 사망자 보고</a> (3.10)  |
| 볼리비아    | 672(40)        | 최초 확진자 보고(3.10), <a href="#">최초 사망자 보고</a> (3.29) |
| 자메이카    | 252(6)         | 최초 확진자 보고(3.10), <a href="#">최초 사망자 보고</a> (3.18) |
| 온두라스    | 519(47)        | 최초 확진자 보고(3.10), <a href="#">최초 사망자 보고</a> (3.26) |
| 쿠바      | 1,189(40)      | 최초 확진자 보고(3.11), <a href="#">최초 사망자 보고</a> (3.18) |
| 가이아나    | 67(7)          | 최초 확진자 보고(3.11), <a href="#">최초 사망자 보고</a> (3.11) |
| SVG     | 13             | 최초 확진자 보고(3.11)                                   |
| T&T     | 115(8)         | 최초 확진자 보고(3.12), <a href="#">최초 사망자 보고</a> (3.25) |
| 베네수엘라   | 298(10)        | 최초 확진자 보고(3.13), <a href="#">최초 사망자 보고</a> (3.26) |
| 우루과이    | 549(12)        | 최초 확진자 보고(3.13), <a href="#">최초 사망자 보고</a> (3.28) |
| 안티과 바부다 | 24(3)          | 최초 확진자 보고(3.13), <a href="#">최초 사망자 보고</a> (4.4)  |
| 세인트루시아  | 15             | 최초 확진자 보고(3.13)                                   |
| 과테말라    | 342(10)        | 최초 확진자 보고(3.13), <a href="#">최초 사망자 보고</a> (3.15) |
| 수리남     | 10(1)          | 최초 확진자 보고(3.13), <a href="#">최초 사망자 보고</a> (4.3)  |
| 바하마     | 65(9)          | 최초 확진자 보고(3.15), <a href="#">최초 사망자 보고</a> (4.1)  |
| 바베이도스   | 76(6)          | 최초 확진자 보고(3.17), <a href="#">최초 사망자 보고</a> (4.5)  |
| 엘살바도르   | 237(8)         | 최초 확진자 보고(3.18), <a href="#">최초 사망자 보고</a> (3.31) |
| 니카라과    | 10(2)          | 최초 확진자 보고(3.18), <a href="#">최초 사망자 보고</a> (3.26) |
| 아이티     | 62(4)          | 최초 확진자 보고(3.19), <a href="#">최초 사망자 보고</a> (4.5)  |
| 도미니카    | 16             | 최초 확진자 보고(3.22)                                   |
| 그레나다    | 15             | 최초 확진자 보고(3.22)                                   |
| 벨리즈     | 18(2)          | 최초 확진자 보고(3.23), <a href="#">최초 사망자 보고</a> (4.5)  |
| SKN     | 15             | 최초 확진자 보고(3.25)                                   |
| 33개국 총계 | 121,531(6,073) |                                                   |

주: 1) 확진자 발생 시기 순, 2) 괄호안은 사망자 수

자료: Johns Hopkins University & Medicine's Coronavirus Resource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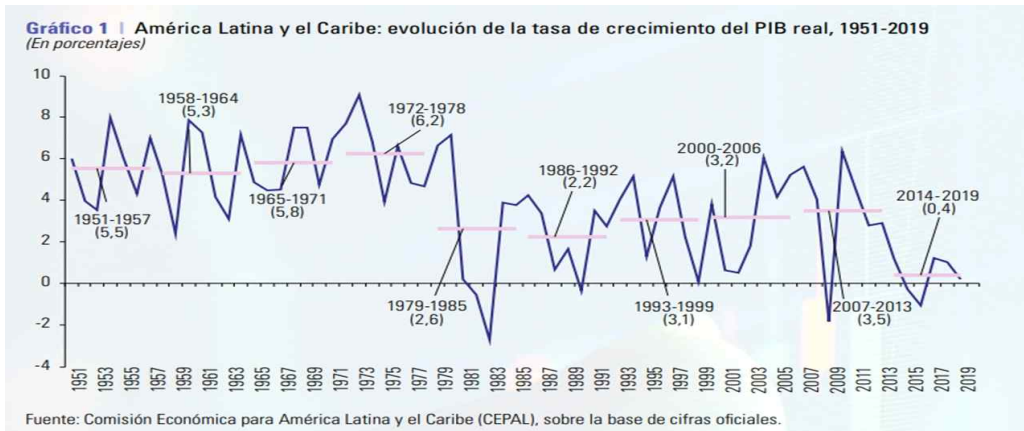
## 2. 경제적 영향

### □ 중남미

- 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ECLAC), 대공황보다 심각한 경기침체 전망(4.21)<sup>2)</sup>
  - 2020년 중남미지역 성장률 전망치(-5.3%)는 1930년(-5.0%)과 1914년(-4.9%)보다 악화

2) CEPAL(2020.4.21.), Dimensionar los efectos del COVID-19 para pensar en la reactivación, Informe Especial COVID-19 No. 2.

그림 1. 중남미지역 실질GDP 성장률 추이



- 33개국 가운데 31개국 성장률이 ‘19년보다 하락(가이아나<sup>3)</sup> 및 베네수엘라<sup>4)</sup> 제외)
-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와 자원 수출의존도가 높은 남미 국가와 멕시코가 특히 취약
- 관광서비스업의 평균 GDP 비중이 15.5%를 차지하는 카리브해 도서국들도 취약성을 노정
- 경제 이외에 사상 최악의 사회적 위기 발생 전망: 빈곤 증가(3,000만 명 증가 및 극빈층 증가), 실업 증가(‘19년 8.1%→11.5%, 총 3,778만 명)
- 1950년대 이후 최악의 경제성장기(2014~19년 연평균 0.4% 성장)를 기록 중인 중남미지역에 코로나19의 여파는 향후 장기간에 지역의 고용, 빈곤퇴치, 불평등 감소 등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
- ECLAC는 중남미 국가들에게 확장적 재정정책(다자금융기관의 저금리 신규 차입, 부채상환 경감 및 면제 등 동반)<sup>5)</sup> 이외에 코로나19 이후 “세계화(globalization)”와 세계에서 발생할 구조변화에 대한 지역의 참여방안과 경제 재활성화 대안 모색 필요성을 제안
  - 생산위기 극복 방안으로 △국가와 기업 측면에서 공급자 다각화를 통한 생산망 조기 회복 △최종소비시장 주변으로의 입지 재편(nearshoring) △생산공정과 전략기술의 재배치(reshoring) 제안
    - \* 다자주의의 취약성 악화에 대가를 치르고 있는 기업에게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절한 내부기능 조정과 자동화 및 디지털화 가속화를 권고
  - ECLAC는 세계화가 역행할 가능성은 없지만, 세계경제는 유럽, 북미, 동아시아 3대축 중심의 지역화 전개를 전망
  - 수입 제조업 의존성이 제고될 중남미지역의 새로운 경제지리를 상정한

3) 2015년 대규모 해상유전 발견 이후 2019년 말부터 생산을 개시한 바, 2020년 60% 이상의 성장률 달성이 전망됨. 인구(80만 명) 대비 석유 매장량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능가함.

4) 마두로 정부 등장 이후 유가하락과 미국의 경제봉쇄로 최악의 경제난을 겪으면서 2019년에 약 -35%의 저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 2020년에는 -15% 성장 달성이 예상됨.

5) 대규모 외채와 상환 부담, 저성장기의 재정수입 확대 한계 등으로 인해 중남미국가들은 선진국과는 달리 코로나19 대응방안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전개할 여력이 취약하기에 국제적 지원이 필요함.

산업정책(생산역량 강화, 전략업종에서의 신규 역량 창출)을 권고

- △생산, 무역, 기술 측면에서의 지역통합 △현재의 위기 대응과정은 물론 이후 중기적으로 만들어질 새로운 글로벌 규범(평등을 강조하는 개발금융,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적응할 역내 거시경제 및 생산에서의 협력을 권고

## □ 브라질

- 폭스바겐, 브라질 공장(4개 공장, 15,000명 고용) 4월말까지 가동 중단 유지(4.20)<sup>6)</sup>
  - 그러나 5월 혹은 6월 가동 여부는 미지수
  - 노조와 수입금 지급이라는 잠정적인 협상으로 가동 중단을 결정했기에 총임금 감소분은 정부보조금프로그램으로 보전 예정
  - 한편 GM은 보조금을 포함하여 약 25% 해당하는 임금을 삭감
  - 자동차 업체들은 임금보전을 위한 유동성 확보방안으로 정부와 긴급대출(1,000억 헤알, 188.8억 달러)을 협상 중인데, 정부의 수용 여부는 미지수

## □ 멕시코

- 신용평가사 Fitch,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심각한 경기침체 전망으로 국가신용등급을 최하위 투자등급인 BBB-로 하향 조정(4.15)<sup>7)</sup>
  - 하반기 회복을 전제하면서 2020년 성장률을 -4.0%로 전망
  - 유가하락, 대외수요 감소(제조업 수출 영향), 해외(미국) 근로자 송금 감소 등을 위험요인으로 제시
  - 3월에 S&P는 BBB, Moody's는 A3(부정적) 등급으로 각각 조정함.

## □ 콜롬비아

- 콜롬비아 정부는 2020년 성장률이 -2%에 그칠 것으로 예상

# 3. 지역/정부의 대응

## □ 방역 대책

- 쿠바
  -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중(4.15)<sup>8)</sup>
    - 쿠바의 Center for Genetic Engineering and Biotechnology에 의하면, 하바나 소재 Luis Díaz 병원이 백신(CIGB 2020) 임상시험 중

6) The Inter-American Dialogue's Latin America Advisor(2020.4.21.), "Volkswagen to Keep Brazil Factories Closed Through April," p. 3.

7) The Inter-American Dialogue's Latin America Advisor(2020.4.16.), "Fitch Downgrades Mexico, Expects 'Severe Recession,'" p. 2.

8) The Inter-American Dialogue's Latin America Advisor(2020.4.16.), "Clinical Trial Underway in Cuba on Covid-19 Vaccine," p. 2.

## ○ 멕시코

- 보건부, 코로나19 팬데믹 3단계 발령(4.21)<sup>9)</sup>
  - 지방정부와 달리 코로나19 방역에 소극적이던 연방정부가 주말부터 확산 속도가 가속화되자 태도를 변화
  - 비필수 업종 영업중지, 전면적 자가 격리,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중교통(지하철, 경전철, 간선급행버스) 운행 제한
- 미국, 캐나다와 더불어 불요한 국경간 이동 제한을 1개월간 연장(4.20)<sup>10)</sup>

## ○ 브라질

- 방역대책을 둘러싼 정책적 혼선과 불안정 심화(4.16)<sup>11)</sup>
  -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를 통한 경제활동 정상화를 주장하는 대통령과 국제적 가이드라인 준수를 주장하는 보건부 장관 및 지방정부 간의 알력 심화
  - 보건부장관을 경질함으로써 사회 및 경제적 불안정성 제고

## ○ 콜롬비아

- 전국 봉쇄 기간 5월 11일까지 연장(4.20)<sup>12)</sup>
  - 두 번째 봉쇄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과 제조업 활동 재개는 허용될 전망

## ○ 에콰도르

- 경제활동 재개 및 해외 거주 자국민 입국 허용 준비(4.21)<sup>13)</sup>
  - 휴교령, 교통 제한, 대규모 집회 금지 등은 유지

## □ 재정 및 금융정책

## ○ 브라질

- 하원, 지방정부 지원법 승인(4.14)<sup>14)</sup>

9) Oxford Analytica(2020.4.22.), "Mexico COVID-19 measures may be too little too late," <https://dailybrief.oxan.com/Analysis/ES252141/Mexico-COVID-19-measures-may-be-too-little-too-late>(검색일: 2020.4.23.)

10) The Inter-American Dialogue's Latin America Advisor(2020.4.21.), "U.S., Mexico, Canada extending border restrictions," p. 2.

11) Oxford Analytica(2020.4.17.), "Brazil health minister's ouster may boost instability," <https://dailybrief.oxan.com/Analysis/DB252020/Brazil-health-ministers-ouster-may-boost-instability>(검색일: 2020.4.20.)

12) The Inter-American Dialogue's Latin America Advisor(2020.4.21.), "Duque Extends Colombia's Nationwide Quarantine Until May 11," p. 2.

13) Reuters(2020.4.22.), "Ecuador aims to restart economy after coronavirus quarantine," <https://www.reuters.com/article/health-coronavirus-ecuador/ecuador-aims-to-restart-economy-after-coronavirus-quarantine-idUSL2N2CA02I>(검색일: 2020.4.23.)

14) Oxford Analytica(2020.4.15.), "Brazil's Congress and president clash on virus relief," <https://dailybrief.oxan.com/Analysis/ES251955/Brazils-Congress-and-president-clash-on-virus-relief>(검색일: 2020.4.16.)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주정부 및 지자체 지원 법안 승인
- 향후 6개월간 연방정부가 896억 헤알(1,780억 달러)을 지원하는 동 법안에 대통령과 경제부장관은 반대

#### ○ 아르헨티나

- 3개 민간채권단, 정부의 부채 재조정안 거부(4.20)<sup>15)</sup>
  - BlackRock, Ashmore, Monarch, Fidelity 등 뮤추얼펀드, 보험사 및 자산관리사가를 포함한 3개 채권단<sup>16)</sup>은 아르헨티나 정부가 4월 17일 제안한 690억 달러 규모의 부채 재조정안을 거부
  - 재조정안은 예상보다 적은 원금 삭감(haircut, 36억 달러, 5.4%), 대규모 이자 삭감(379억 달러, 62%), 원금 및 이자 상환유예 3년 등으로 구성
  - 또 다른 채권단인 아르헨티나민간채권단(ACC)은 재조정안 수용을 위해 “구체적이고 타당한 정책”과 구조개혁에 기초한 거시경제 계획 제시와 같은 신뢰할만한 협상을 요구
  - 아르헨티나 정부는 지난 2년간의 경기침체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해 긴축정책과 유사한 요구를 거부
  - 채권단들의 부채 재조정안 거부는 정부의 협상력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디폴트 위험을 한층 제고하는바, 4월 22일로 예정된 5억 달러 상환에 실패할 경우 30일 유예 직후 디폴트 선언
- 정부, 부채 재조정 조건을 담은 행정부령 발표(4.21)<sup>17)</sup>
  - 민간채권단의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재조정안에 의거하여 신규 채권 교환 규모(달러표시채 445억 달러, 유로표시채 176억 유로(191억 달러))를 제한

#### ○ 멕시코

- 중앙은행, 금리인하 및 추가 유동성공급(7,500억 페소, 310억 달러) 발표(4.21)<sup>18)</sup>
  - 금리인하: 6.5%→6.0%
  - 상업은행과 개발은행에 2,500억 페소 공급(중소기업 및 개인 대출)
  -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헷지 거래 지원 등

15) Oxford Analytica(2020.4.20.), “Debt rejection raises Argentine default risks,”

<https://dailybrief.oxan.com/Analysis/ES252061/Debt-rejection-raises-Argentine-default-risks>(검색일: 2020.4.21.)

16) 2016년 이래 발행된 아르헨티나 채권 약 25%와 2016년 부채 재조정으로 투자자에 배분된 채권의 15%를 보유.

17) Oxford Analytica(2020.4.22.), “Missed payment might give clues to future in Argentina,”

<https://dailybrief.oxan.com/Analysis/ES252124/Missed-payment-might-give-clues-to-future-in-Argentina>(검색일: 2020.4.23.)

18) Reuters(2020.4.22.), “Mexican central bank unveils \$31 billion stimulus, cuts interest rates,”

<https://uk.reuters.com/article/uk-mexico-cenbank/mexican-central-bank-unveils-31-billion-stimulus-cuts-interest-rates-idUKKCN22332E>(검색일: 2020.4.23.)